

알기 쉬운 양돈전문용어 풀이 <경영편>



조 광 호
〈전남대 농대 교수〉

지난호에 생산비, 수익성 등에 관한 몇가지 용어를 설명하였으나, 수회에 걸쳐 게재함을 알고 약간은 당황하였다. 따라서 이 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함을 사과하면서, 이번호에는 양돈경영의 안전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은 장기자본(자기자본+장기차입금)중에서 고정자산에 투자되지 않은 나머지 자본, 즉 유동자산에 운용할 수 있는 자본부분을 말한다.

* 운전자본 = 장기자본 (자기자본 + 장기차입금) = 고정 자산

장기자본은 자기자본과 장기부채(변제기간이 1년 이상인 부채)로 구성되며, 이 범위내에서 고정자산에 투

자하여도 당년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계이다. 즉 운전자본은 유동자산으로부터 유동부채를 공제한 것이다.

여기서 유동부채(또는 단기부채)는 1년 이내에 변제되어야 하는 부채로 정의되기 때문에, 운전자본은 장기부채 또는 자기자본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양돈경영자는 유동자산에 충당할 단기부채와 운전자본과의 개략적인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유동비율이다.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며, 연내에 지불해야 할 차입금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frac{\text{유동부채} + \text{운전자본}}{\text{유동부채}} \times 100$$

예컨데 유동비율이 200%라면 유동자산의 절반이 운전자본으로 조달됨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라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도 적으므로 유동부채의 변제를 위해서는 고정자산의 일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건전한 경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동비율이 클수록 경영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유동비율에 수반되는 비율로 당좌비율(Quick ratio)이 있다. 이는 현금 및 매출채권과 같은 유통자산의 유동부채에 대한 비율로서 현금과 예금, 증권 매출채권(이를 바로 현금화 할 수 있으므로 유통자산이라함)만으로 그의 유동부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검토하는데 쓰인다.

$$* \text{당좌비율} = \frac{\text{현금, 예금, 증권, 매출채권}}{\text{유동부채}} \times 100$$

당좌비율은 100% 이상이 되어야 유통자산으로 단기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2. 부채 및 자본에 관한 비율

자본의 조달형태는 그의 조달원천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부채)으로 구성된다. 자본구성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인자본에 비해 매우 적은 경

우, 이자의 부담이 커져 경영의 수익성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기자본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총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부채비율이라 하며, 이는 부채 대 총자본 비율로 표시하기도 한다.

$$*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text{총자본}} \times 100$$

$$* \text{자기자본구성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times 100$$

$$* \text{부채자본비율} = \frac{\text{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반대로 총자본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기자본 구성비율이라 하며, 경영체의 부채와 자기자본과의 비율을 파악하여 부채가 자기자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들은 자산구성이 경영형태와 규모에 비추어 타당함을 표시하는 주요한 안전성지표이다.

또한 부채와 자기자본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유동부채 대 자기자본 비율이 있다.

$$* \text{유동부채 대 자기자본비율} = \frac{\text{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이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변제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경영체는 안전성이 있다. 또 고정부채에 대한 비율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고정부채 대 고정자산 비율이 있다. 이는 고정부채(장기부채)의 고정자산에 대한 백분비로서, 이 역시 낮은 것이 좋다.

$$* \text{고정부채 대 고정자산비율} = \frac{\text{고정부채}}{\text{고정자산}} \times 100$$

3. 고정자산에 대한 비율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사업 운영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것 즉 토지, 농기계, 돈사 등 건물, 시설, 종돈 등 내구년한이 1년 이상인 것을 고정자산이라 한다.

고정자산에 관계되는 제비율은 투자의 적정여부와 지급능력의 분석에 도움이 되나 고정자산의 투자를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양돈가이든 새로운 고정자산이나 오래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오래된 것은 그 가치가 감소되기도 하지만 인플레이 등에 의해 많이 오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정자산을 검토하기 위한 비율중 하나가 고정자산 구성비율(Fixed assets ratio)이며, 이는 고정자산이 총자산중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로서 나타낸다.

$$* \text{고정자산 구성비율} = \frac{\text{고정자산}}{\text{총자산}} \times 100$$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총자산중 자본회전이 낮은 고정자산의 비율이 많다는 것이며, 그만큼 자본회전이 늦고, 불황시에 대응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고정자산은 양돈경영 내부에서 오래 동안 경영수단으로 계속 쓰일 자산이므로, 이에 투자될 자금은 안심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비율(Fixed assets to net worth)이 있는데, 이는 고정자산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이다.

$$* \text{고정비율} = \frac{\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times 100$$

즉 고정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이며,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자본의 일부가 고정자산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고정부채까지 고정자산에 투입되었을 때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정장기적합율(Fixed assets to fixed debt and net worth)이 있다.

$$* \text{고정장기적합율} = \frac{\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 \text{고정부채}} \times 100$$

고정자산이 자기자본으로 구성되면 가장 이상적이거나, 적어도 자기자본과 고정부채의 합계액보다는 적은 것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고정장기적합율이 100%를 넘으면 유동부채의 일부가 고정자산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경영체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 할 수 있다.*